A Study on the Formation Factors of Grotesque Image expressed in Fashion

Mi-hyun Nam
Dept. of Fashion Design, Keukdong College, Concurrent Professor of Industry
(2002. 10. 11. 작성)

Abstract

Some factors had influence upon the grotesque image formation expressed in fashion: for instance, thanatos, religions, fin de siecle (end of the century), the aesthetics of ugliness, subculture group’s resista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etc. Those factors have formed a grotesque while exchanging influence each other, and have following features:

First, the thanatos, which is destructive and aggressive instinct of the inner world of human being, creates frightening object and motif to form the images of grotesque.

Second, from religious point of view, the church made the Devil a tool for maintenance of power: They manipulated physical body and give a damage to it to sublimate it in holy existence, so that they could feel catharsis.

Third, there was fin de siecle (end of the century) to let people have negative life attitude, such as uneasiness on following century, eschatology, skepticism and nihilism, etc.

Fourth, the ugliness having unpleasantness and disharmony occupies governing position when our society becomes corrupted and uneasy, and the aesthetics of ugliness discloses the inconsistency of ideal and beautiful life in the grotesque images.

Fifth, subculture groups, i.e., the lower classes, homosexual and the youth’s group, etc, form the grotesque images by political and ideological resistance, complaints and specific identity, etc concerning governing culture keeping traditional ethics consciousness.

Sixth, recent technology development has destroyed a boundary between human being and machinery, and bio-technology development has created transplant operation, plastic operation and other human body transformation operations, and genome research, etc has raised human being’s identity.

Key Words: Grotesque image(그로테스크 이미지), The aesthetics of ugliness(추의 미학), Thanatos(타나토스 : 죽음의 본능), Subculture groups(하위문화집단), Fin de siecle (end of the century : 네가말)
I. 서론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과거에 드러낼 수 없었던 전반하고 파괴적인 인간 본능의 모습들은 예술에서도 분명히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과거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현대 예술의 경향은 세기말의 시대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반영하여 정상적이고 평범한 이색에서 벗어난 예술, 과장, 변형, 유머, 희곡 등과 같은 충격적인 이미지를 현대 사회의 현대 문예들로 이어지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적 성과 표현방식을 가운데 특히 그로테스크는 과장되고, 극복적으로서도 한편으로 기괴하고 불쾌한 이미지로 사회정반에 반영된 상징적 무조화와 소외현상에 드러내고 있다.

그로테스크는 단지 현대에 국한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 초기의 장식물들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시작되어, 16세기 베네치아시대, 프랑스, 이탈리아, 남미주의, 19세기말, 20세기말 등 부정과 과장으로 정착된 혼란고 혼란적인 미의식이나 절대적인 가치가 붕괴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특이하게 나타난 것이다.

미인이 복식에서의 그로테스크현상은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던 시대가 이후 빈번히 나타나며, 특히 90년대 이후에는 세기말적인 영향으로 더욱 충격적인 표현을 시도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성과 왜곡되어 보이고 있다.

복식에서의 그로테스크에 관한 연구는 최정희§, 박은정§, 김유정§, 김유정§의 연구가 있지만 그로테스크의 의미적 특징 분석에 그치고 있어, 그로테스크 형성의 원인분석을 총체적으로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로테스크의 개념을 정립하고, 복식에서의 그로테스크 이미지 형상에 영향을 준 장식문학적, 사회 문화적 요인을 바탕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그로테스크가 우리 사회의 현대 문예들로 드러난 문화적 표상물임을 확인해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국내의 관련문헌 및 현행 연구자료를 이용한 문헌 연구와 관련 패션의 사전과 인터넷 등의 실증적 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실증적 분석 방법은 분석부터 현대까지의 조형예술과 복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의 복식은 프렌드 포르테(Pret-a-porter) 캐릭션에 발표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II. 그로테스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그로테스크의 개념

그로테스크(Grotesque)는 ‘괴이한’, ‘기묘한’, ‘무서운’ 등으로 뜻한다. 그 어원은 이탈리아 ‘동굴’ 혹은 ‘발굴’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로테(grotte)이며, 형용사형인 그로테스코(grottesco)와 명사형인 그로테스카(la grottesca)가 생겨났다§.

그로테스크는 1480년경 고대 로마 농장 행상의 유적이 발견되었을 때 벽화에 나타난 양식으로 동물제, 식물제, 인간, 반인반수(半人半馬)·반인반수·목신(神神)을 포함한 신화적 형상이 융합된 형태를 보였다. [그림 1]

(그림) 그로테스크문학, 1607년경, 미술사전, 한국사전연구, 1998, p.67)

2) 최정희(1998) 현대 패션의 그로테스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Philip Thomson, 천지아, p.17.
와 같은 고로테스크 이미지의 원형은 그리스 신화에서 발견되는 극도로 고풍스러운 것이었다. 그것은 그리스 고전기부터 저속한 변방의 양식으로 간주되어 공식 영역에서 추방되어 독자적인 비고전 양식으로 작업되었다. 고로테스크라는 말이 문학과 비미술 분야로 확대된 것은 프랑스의 경우 16세기 경이었는데, 라블레(Rabelais)는 이 말을 신체부위를 묘사하는데 사용하여 고로테스크 신체라는 개념을 부각시켰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18세기에 캐리커쳐(caricature)와 관련점으로서 '우스꽝스러운', '뒤 האמריקאי', '부자연스러운 것', '부조리', '자연의 왜곡' 등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하여 신고전주의 시대에는 무질체, 환상, 개인적 취향, 유기체의 자연적인 상태와 과일 같은 고로테스크의 특징들이 조형물과 배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부정적 의미로 사용했던 고로테스크가 난민주의 시대에 이르자, 고로테스크에 내재된 웃음과 공포,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인 양면성을 지닌 고로테스크의 미학적 당면상과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전개되었다.

특히 비토르 휴고(Victor Hugo)와 체셔턴(Chesterton)은 고로테스크를 공상보다는 사실에 관계시키는 한편, 그것을 습고와 대비되는 미학적 개념으로 간주하면서 고로테스크가 갖는 무한한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 1957년 독일의 비평가 카이저(W. Kayser)는 「예술과 문학에서의 고로테스크」에서 고로테스크의 정착을 규정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고로테스크가 희소 주목할 만한 미학적 분석과 비평적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고로테스크의 양면성을 강조하는 한편, 고로테스크는 전반한 세계가 갑자기 낡아진 것, 소외된 것의 표현이라는 전제와 함께 고로테스크를 즉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 존적 풍토에 관계시켰다.

카이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하이트드지아이크(A. Heidzieck)는 고로테스크 현상을 '기형화(Deformation)'나 '사실의 왜곡 (Entstellung der Realität)'으로 보았다.

미하엘 바흐틴(Mikhail Bakhtin)은 카니발(Carnival) 고로테스크를 대두시계킴으로써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하고 예술의 소통적 차원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던 시각에 부합할 뿐 아니라, 광범적 신체와 신체의 음질성을 강조하였다.

필립 토스먼(Philip Thomson)은 고로테스크 개념을 부조화, 화학적인 것과 동시에 흐트러진 것, 광장과 극단, 비정상성으로 규정하고 부조화, 캐리커쳐, 페러디, 평차, 아이러니 개념과의 상관성을 통해 고로테스크를 종체적으로 인식하고자 하였다.

크리스찬 톨렌(Christain W. Thomason)은 고로테스크는 이질적인 부분들(식물적인 것, 동물적인 것, 인간적인 것)의 계속적인 변화로 새롭고 독자가 단일체로 혼합되기로 용용되어 이미 인정된 규범들을 초도시키고, 기대영역에 완벽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최근 포스트모던의 문학과 예술에서의 고로테스크에 대한 논점은 인간 소외와 공포, 비극을 강조하는 카이저의 정신분석학적 언어니언(Uncanny) 고로테스크와 물질적 신체, 이중적, 문제적 문제를 둘러싸고 있다.
외국, 변형, 비정함을 주장하는 바호칙의 사회주의적인 카니발(Carnival)이 그로테스크 이론을 기초로 두 축을 이루며 양자가 대립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16]。

이상의 그로테스크에 대한 여러 개념적 정의들은 중세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명확성을 사상한 체험자들만이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이것은 그로테스크라는 이미지가 그 유용한 형태가 없는 개념이며, 고정되고 안정되거나는 부단한 인체의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

<table>
<thead>
<tr>
<th>표 1</th>
<th>그로테스크의 개념 변화</th>
</tr>
</thead>
<tbody>
<tr>
<td>사례</td>
<td>그로테스크 개념</td>
</tr>
<tr>
<td>로마시대</td>
<td>비무형, 유동, 인간의 형태와 목적이 결합된 인간</td>
</tr>
<tr>
<td>1C</td>
<td>신체의 무형을 묘사</td>
</tr>
<tr>
<td>1C</td>
<td>절제에 극한을 도달한 인간의 형태</td>
</tr>
<tr>
<td>남방유적</td>
<td>과장과 역할</td>
</tr>
<tr>
<td>2C 전반</td>
<td>전면</td>
</tr>
<tr>
<td>2C 후반</td>
<td>부조, 변형, 비정함</td>
</tr>
</tbody>
</table>

III. 복식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형성 요인

1. 정신분석학적 요인

1) 인간의 본성: 죽음의 본능

프로이트(S. Freud)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살의 본능(에로스:Eros)'과 함께 '죽음의 본능(타나토스:Thanatos)'이 잠재되어 있으며, 살의 현상은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협력작용 및 대립작용이라고 한다. 에로스는 자기존의 본능, 종족보존의 본능, 자기에 대한 내면을 모든 내포하고, 타나토스는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본능을 의미한다. 타나토스가 공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존재의 소멸, 정체성의 상실, 에로스의 삶의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본능, 곧 죽음이다[18].

죽음 본능의 최종 목표는 고통이나 욕망이 없는 출생이전의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려는 욕구와 같으며, 이는 인류문화 전반에 걸쳐 완성적이고 상식적임으로 나타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죽음의 본능은 1차적으로 자기파괴, 2차적으로 외부, 즉 공격분능으로 나타난다고 한다[19].

이러한 모든 생명체 내에 잠재되어 있는 죽음으로 회귀하려는 성격은 외부적인 환경에 억압되며 죽음 본능의 애너그라 바인적인 변호의 과정을 겪게된다. 프로이트의 죽음의 본능론은 인간의 자기파괴적 인식에 완전한 충돌을 주장했으며, 문화에 대한 불안에서 물질분명이 전보하고 성장함수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자기파괴적 충돌의 축적적이라고 보았다고[20].

인간의 어두운 무의식으로부터 나온 그로테스크는 예술에서도 죽음에의 탐색으로 표현된다. 고대 스타일의 회화나 사진에서 배우나 사신, 절단된 신체, 음산한 평온 등에서 근간기적 변형이 되는 죽음에의 상징을 발견할 수 있다. 오버리 베이어시리(Aubrey Beardsley)는 「살로메」에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가 죽음기에의 속이 꽃처럼 솟아오르게 표현하여 죽음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번민의 신에 아카디우스(Akardius)는 피와 신체의 장기와 요소는 도리어 현저한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상극적인 의미를
보여주는데 (그림 3). 이렇게 복식에서 그로테스크는 섬뜩한 오브제나 문신, 죽음을 상징하는 모티브를 사용하여 인간의 죽음의 본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 문화적 요인

1) 종교

그로테스크의 표현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종교의 기독교와 관련이 깊다. 「책(록) 형도」, 「다로의 목욕서」, 「わけではない」 등 복석서 필사본에 그로테스크한 그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권력이 중심에 있던 종교에서는 그들의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고자 전국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악마가 필요했다.

중세 후기, 그로테스주의자 (gonosticism)를 인체의 물리적인 본성을 훼손하고 부인했으며 인체가 영혼의 감수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의 제약으로부터 영혼의 해방을 경계할 수 있는 개인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13-16세기 유럽은 종교적 목표를 행해지는 인체의 조직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찼다. 남녀 성인(聖人)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물에 말을 뛰거나 체득한 빗이나 거꾸로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21).

부자연스럽게 신체 상태가 과정, 실에 있어서의 불가사의한 고동, 시체의 부패 역제와 향기가 나는 것, 고동과 짐병이 하느님을 만나는 자의 신성하고도 복잡한 육체적, 심리적, 성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중세 그로테스주의의 규칙과 교리 그리고 인체의 조직이나 손상은 물리적인 인체에 대한 거부의 표시가 아니라, 인체를 신성한 존재 (divine presence)로 숭화시켜 가는 향한 카르시스의 수단이었다 (22).

15세기 말, 헤에로나우스 보슈 (Hieronymus Bosch)는 종교혁명의 풍파시대에 살면서 악(慟)에 대한 절려적인 성찰과 기반의 풍자로 가해 신의 섭리에 반한 종말관관의 세계상을 그려 (23) 당시 사람들에게 이단자, 악마의 창조자라 불렀다. 그의 작품인 「지상적 폐락의 정원, 800년 경」에서는 인간, 동식물 및 여러 기타 사물을 섞은 괴이한 형상으로 혼요스럽고 잔혹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동시에 사물의 외국에서 기한 우스꽝스러움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14세기 후반 정교한 해드 드레스는 비난을 받았다. 악마가 전국으로부터 추방됨에 그가 죽었기 때문에 자연에 의해 빼앗은 악마의 영혼에 위협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24)

「La Tour Landry」에 의하면 이것은 때때로 페드를 낼어 동급계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 여성들의 허영심의 증거이며 악마들이 좋아하는 중앙에 푸른 사이에 앉아있는 것을 본다고 한다. 어떤 여성들은 교수대 같은 높고 긴 애비 (pynnes)를 뒤로 보강된 해드 드레스를 입기도 했다. (그림 5)

19세기 고딕문학 (gothic)의 중심주제는 ‘괴물 (monster)’이었다. 당시 블로이지미 대에는 도덕적, 종교적 그리고 관습적인 역으로 인하여 올리적인 부르주아들이 인간의 죄임성을 대표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는 흔한 헤일비 (vampire), 좀비 (zombie), 늑대인간 (werewolves),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의 피조물이나 미스터 하이드 (Mr. Hyde) 같은 인조괴물 (man-made monster) 등은 인간의 죄임성을 부정하는 상징물들이었으며 비기독교적이며 영혼이 없었다 (25).

---

21) gnosticism: 종세기 신비주의적 이단교도.
23) 전세계, pp. 170-171.
1970년대 후반부터 고덕은 대중영화와 영화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드라큘라로부터 시작된 오랜 공포영화의 전통에서부터 고덕 스타일은 기초하고 독특한 미학을 통해 인간의 어둠
고도 추하고 복직의 비정상성을 보여주었다.

복식에서 고덕 스타일은 유령·흡혈귀·마녀 같은 메이크업과 얽혀있는 해어스타일·검정색
복식과 증세가 모티브의 사용으로 드라큘라 패
션이나 악마귀의 패션(그림 6) 등의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형태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그
로데스크 이미지의 형성은 종교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 세기말 현상

세기말의 일반적인 현상은 다가올 새로운 세기
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현태에 대한 최고의 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종말론, 외로움, 신비주의 등이 기승을 부리거
나 향락주의와 에로티즘이 번창하기도 한다30).  

19세기말은 저작권, 예술가, 무정부주의자들
이 사회 전반에 폐쇄해진 불안한 상황을 표출한
시기였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제국들이 싸우하
였으나, 현재를 통한 군사 대국화와 막바지 제
국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이런 시대 상황은
전쟁의 공포, 불확실성, 허무, 퇴폐 등으로 인하
여 복적 죽음에 대한 불안과 부정적인 삶의 태도
를 일반 대중에게 야기시켰다.

이 시기에 나타난 상징주의(Symbolism)는
형상의 변형과 왜곡을 통하여 인간의 원시적 본
능인 성과 죽음에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
계, 상상의 세계, 비물질적인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몽크의 「정수」에서의 붉은 빛받은 태양,
다리를 휘두르며 서서히 양쪽 귀에 손을 대고 죽
로의 소리나는 인간이 마침 해결과 같으며, 복
적인 근심, 불안감, 신비주의 성적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7)

19세기말이 주로 죽음을 의한 사회적 불안이
때때로 나타난다. 20세기말에는 포스트모던주의 시
대 상황으로 조명해 볼 때, 인류에게 총알을 가
자울 수 있는 현상이라고 여기는 AIDs 문제,
지구 운전자(GlobaL Warming), 오존층 파괴
(Depletion of the Ozone Layer), 과학의 발
전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같은 주로 인간의
행위의 결과로 인한 물리적인 원인으로 죽음이
라는 문제가 야기되었다31).

또한 1990년대 말에는 '발레론' 또는 '종말
론'과 함께 등장한 사이버 종교 단체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995년 일본에서는 유플러로리
(真理教)의 이익에 의해 동경 지하철 폭가스 테러사건이
이어졌고, 유럽 및 미국에서 일어난 사이버종교
종양교의 사설 사건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마
법과 마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는데 이는 초
자연적인 힘에 의존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
거나 기적을 하는 근본적인 특성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세기말 사상의 영향으로 대중들은 좀
더 자극적인 패션을 추구하게 되고, 세기말에 가
까이 갈수록 극단화되어지는 현상이 복식의 역사
상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기말에 극
단적으로 기어진 리프 갈라와 소매, 과도한 허리
조명은 인체의 균형과 비례를 무너뜨릴 정도로
심했다. 19세기말에는 벨리의 점차 커퍼지와, 버팀
대에 대해 일반인들은 물론 당시의 패션 전문가
였던 워드바저도 협조점을 느낄 정도로 그로데
스크하였다32).

90년대 말에도 유플러로리의 타락 현상과 그에
따른 신도들의 분열로 현재까지의 주요한 대중사
며,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어그로 패션(Aggro
Fashion)이나 오바한 매즈스테(Detester)적인
노로티 패션(Neurotic Fashion)33)이 자주 등
장하였다. (그림 8)

30) 배수정, 전세서, p. 118.
31) 뉴로티 패션(Neurotic Fashion)은 '심정적등'이라는 의미의 팽고 용어에서 비롯된 용어로, 팽고 진정한 노력의 모양이 아니라 어들
고 음속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3) 추의 민학

추(味)란 미와 상관된 것이며, 고대로마학자들에 의하면 미는 ‘행식의 조화에 있다’, ‘조화가 있고 일정한 비례가 있다’, ‘동일성이 있다’ 고 하였으며, 추는 ‘조화되지 않은 것’, ‘비례에 맞지 않는 것’ ‘동일성이 없으면 정화된 것’이며, 이 식(理式)에 통합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을 말한다.22)

근래로 오면서 후기 중세 기독교적인 세계 이해에 반하여 부정적인 학자적 사고에 따른 미를 초원한 추로 발전하여 중대적 근정적, 적극적 의미로서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바르크, 사실주의, 자연주의의 예술에서 보이지듯이 추가 정점을 예술 세계로 잡아내게되자 미학에서도 추의 적극적 의의를 인정하려는 이론이 나타났다.

18세기에 이르러 추의 개념이 서서히 미학의 주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18세기 말이 되면서 시 민폐계의 성장에 따라 창작 대신 표현을 추구하는 추미성의 변화가 일어났다. 산업자본주의와 도시화의 발달로 인하여 추의 미학이 탄생하였고, 디킨스와 보들레르 등 공업도시 작가들은 추를 창작하였다.

19세기의 도시와 산업자본주의는 새로운 미의식을 낳았는데, ‘자연스러운 것’이 ‘미적’이라는 동식관계는 묻어있으며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고, 과장되고, 변형한 것조차 새로운 산업적 추향 미적 기준에 의해서는 ‘미’가 될 수 있었다.

로렌크란츠(Kari Rosenkranz)의 ‘추의 미학(Aesthetic des Halichen, 1853)’에 의하면 예술이 인던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궁정적인 미와 부정적인 추가 서로로 합하여 있다고 했다. 추는 미의 자극적 행여 보일 수 있는 추를 통해 아름다운 삶의 이상에 소란을 폭로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의 표현 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폭선에 할기를 불어부리는 자극적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4) 하위문화 집단의 지향

하위문화 집단은 엘리트 문화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집단으로 상류사회의 대한 하류 계층, 이상애자(異性愛者)에 대한 동성애자, 가성세대에 대한 청년집단 등을 말한다. 이들은 전통적 문화의

22) 박선규(1995), 추(味)와 미(美)의 한계, 미술세계, 7월, p. 186.
식을 저거나가는 지배문화에 대해 의도적 불만을 토로하고 자신의 특정한 정체성을 외형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육성이 표상된다. 패션을 통한 하위문화의 저항은 계급과 성에 대한 모습이 뒤집히는 사회적 역할로부터 방출되어 이는 더 충격적인 육체적 자비발견이다[35].

1960년대-70년대에 영국의 젊은 귀족들은 중심으로 한 마라로니(macaroni)패션은 헤이せい, 무책임성, 여성적, 귀족의 애정결의 상징으로 조소의 대상이 된 전형적인 의상이었다.[36] 그림 12) 피를 두른 마라로니의 가발, 가벼운 싱크스타킹, 약사다리를 착용하였으며, 마라로니의 의미는 불합리로 처칠한 모든 종류의 사람들 비난하는 여론으로 사용되었다[37].

1954년 처음으로 사용되어 놀라움을 갖게, 그리고 거부이기자조한 미술양식으로 받아들였던 밀 아트(Pop Art)는 현대의 거대도시, 그 속에서의 '대중적 삶', 도시 안에 갇혀서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인간들을 그로테스크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 캐스트는 특히 성적(性的) 본능의 표출로 음악, 타락, 범죄적인 잔인성을 표현했는데, 앨런 존스(Allen Jones)의 '모자갈이 테이블 의자'라는 작품은 여성의 형상을 태어들로 무생물화하여 성을 상상화하였다.[38] 그림 11)

사회적 우월과 영동의 표상으로 정의 내린 급속과 성 정체감에 대한 강요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불만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불만은 패션을 통해 토로되었다. 즉 댄디(Dandy), 모스(Mods), 힙시(Hippies), 폭츠(Punks) 등의 하위문화와 패션가들과 배우들의 공연성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의 패션은 계급과 성, 인종적 정체감에 대한 저항의 표상이었다[39].

19세기 댄디의 의외는 부르주아의 저급한 취미에 대한 반감을 했고, 냉망주의의 우울, 권태, 불행 등의 병적 즉시가 지고의 미로 잃어버렸다. 강하고 활동적인 전통적 남성미는 이후 댄디에 의해 해체되고 낭만적 남성, 매혹적으로 아름다운 남성미로 대체되었다. 극단적인 경우 댄디들은 여성의 코르셋을 착용하여 허리를 조이고 영양이를 즐겨서 이는 주요한 홀로명하며 사람의 변형을 묘사하고 있었다[40].

1967년경부터 미국의 힐리들은 당시 비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와 평화를 부르짖었으며, 현대 문물문명에 대한 환영을 느끼고 싶어 펜사델리(psychedelici)음악과 환각제의 복용을 통하여 모신된 사회의 격차를을 표현하였다. 힐리는 네덜러리와 바렌 의상, 딸바, 빗질하지 않은 옷, 깔끔이 없는 몸, 깔끔이 기대에 맞지 않는 옷, 어울리지 않는 조합 등의 적합하지 않은 의복으로서 60년대 후반의 그로테스크 패션은 대표하였다.[41]

1970년대 말 경제적 공황으로 대규모 실업자들의 출현과 더불어 현대 사회의 이기 속에서 나타난 펑크는 '하급의 것', '뜻내기', '찜은 약한', '침은 반박자를' 뜻하는 것에서 말 수 없듯이 반항과 불쾌감을 그 특징으로 한 타브를 말한다. 러셀(Douglas A. Russel)이 펑크를 사회적 개념이 의미하는 모든 종류의 극단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듯이, 펑크 패션은 검정색 의상과 일체적인 금속 장, 넓어진 티셔츠, 안전장, 펄팅한 머리, 긴눈 논 입술화장, 검정 금세의 낙발 등으로 절망·중풍·공포를 표현하며 힐리의 헤이せい, 옵서바티, 티셔즈 그리고 성의 혼돈양상을 그로테스크하게 나타내었다.[42] 그림 13)

청소년 또는 하루 계층 못치지 않게 올리브트의 에도 전하는 중요한 하위문화 집단은 체크와 패 즈비언이다. 1970년대의 새로운 이론들은 이성

---
37) 이민복(2000), 남성의 옷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론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9.
38) 노경식(1994), 언어과도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5-37.
41) 이정구, 천계성, p.32, 35.
예를 특정화 하려는 목적의 역사적 과정을 강조하면서 동성애를 응호하였고, 이것이 상업적 힘 이 퍼지면서 동성애자들은 패션 런데셔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크로에이널의 대중문화의 우상 중에는 동성애 적 감동이 표현된 성적 특성이 모호한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5) 기술의 발달

기계문명의 역사에 있어서 산업혁명은 경제적 으로 많은 이점을 가져왔고, 산업이 하이테크화 되고 인간생물의 편리성이 강조될수록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져 특히 고흥 기술검적으로 이루어진 컴퓨터는 우리의 생활에 전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 적으로는 인간을 억속하는 기계의 부품으로 변화시키는 비인간화를 수반한다는 의미에서 비판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아식수술, 성형수술 등의 인간신체를 둘러싼 바이오 테크놀러지의 발달은 신체 변형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계놈(genome) 연구에 의해 인간의 신비가 밝히지고 해체되는 상황은 인간 고유의 정치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80년대 중반 당시의 테크놀리지의 산물이며, 20세기 첫단 이론인 인공 두뇌학(Cybernetic)과 반향적 성장을 된 폭크 스타일이 가상 현실 속에서 과학적 허구와 헷갈린 것을 의미하는 사이 버 폭크가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과학적 공상과학 소설작가나 컴퓨터 빅데이터를 의미했으나, 이 제 음악, 미술, 신조정신의학 그리고 최첨단 기 술까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폭크의 대표적인 형상은 사이보 그(cyborg)라 할 수 있으며, 사이보그는 자연적 신체와 인공적 기계의 결합으로, 초기 로보테스 크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 Blade Runner, Mad Max, Robocop 등의 공상과학 영화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원시적 요소와 하이테크적인 요소를 결합한 절망적인 영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즉, 사이버 폭크의 스타일은 기계적 과학 세계를 중심으로 한 고무터보, 가스 마스 크, 진주회로나 홀로그램, 로봇 팔 등 하이테크 소재의 산업폐기물로부터 브리콜라지(Bricolage)를 창조한다.

〈그림 14〉는 반도체 칩과 회로로 장착된 사람 의 뇌를 디지털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 림 15〉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작품은 인간신체 내부의 혈관과 신경조직 대신에 반도체회로와 여러 전선가닥으 로 구성된 미래의 인간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 날 인공신경과 유전자 변형 등 여러 생체공학의 기술의 발달은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적 모습을 구현 한 것이다.

이처럼 현대의 테크놀러지의 발달은 폭사에서 신체를 하나의 오브젝트로서 분리, 합성, 왜곡, 변 형을 통하여 새로운 신체로 개조가 가능하며 그 로테스크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은 인간의 정치성 상실의 문제가 제기되며, 우 리로서 새로운 도덕성과 윤리성을 회복한 것을 요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복식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형성 요인을 정리하면(표 2)와 같다.
<table>
<thead>
<tr>
<th>표 2</th>
<th>복식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형성에 영향을 준 정신분석학적, 사회 문화적 요인</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정신분석학적</td>
<td>충성</td>
<td>예술</td>
<td>대표적인 Look</td>
</tr>
<tr>
<td></td>
<td>독음의 본능</td>
<td>* 인간 내면의 과태하고 공격적인 본능. &lt;br&gt;* 문화에 대한 불안, 물질문명의 전복을 추구하는 자기문화적은 증가한다.</td>
<td></td>
<td>Goths Fashion</td>
</tr>
<tr>
<td></td>
<td>종교</td>
<td>* 종교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을 도구화함. &lt;br&gt;* 종교 이념(로마문화)은 신체의 조작이나 손실을 신체를 신성한 존재로 승화시키는 카르타시스의 주권으로 보인다.</td>
<td></td>
<td>Goths Fashion</td>
</tr>
<tr>
<td></td>
<td>사회문화적</td>
<td>* 니어클라이어에 대한불안감과 종합론, 미의론, 박취주의로 부정적인 나머지에 도달된다.</td>
<td></td>
<td>Aggro Fashion</td>
</tr>
<tr>
<td></td>
<td>세계관 현실</td>
<td>* 테리테스 (Decadence) &lt;br&gt;* 대체예체 (Deco)</td>
<td></td>
<td>Neurotic Fashion</td>
</tr>
<tr>
<td></td>
<td>추의 미학</td>
<td>* 추의 투태 아름다운 실의 이상 &lt;br&gt;예 모순을 위집고자하는 것이며, 복식의 표면적 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적 풍발적 부정적 미학적 은 가르는 자극체의 역할을 한다.</td>
<td></td>
<td>Goths Fashion</td>
</tr>
<tr>
<td></td>
<td>사회문화적</td>
<td>* 사회적 개념의 타당성의 지배</td>
<td></td>
<td>Incorruptible</td>
</tr>
<tr>
<td></td>
<td></td>
<td>* 사회적 개념의 타당성의 지배</td>
<td></td>
<td>Hippos</td>
</tr>
<tr>
<td></td>
<td>기술 복합</td>
<td>* 기술의 발달로 기계와 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미학성, 성형성, 설계성 등 신체 변화가 가능하게 되고, 제조 중계 중계로 인한 인간의 정체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td>
<td></td>
<td>Technos</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Cyberpunk</td>
</tr>
</tbody>
</table>
IV. 결론

비정상적이며, 과격하며, 협소스러운 반면 동시에 재미와 옷суж이 섞인 아이러니적 산들인 그로테스크는 무한한 다양성의 형태로 새로운 창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과도기적 상황에서 기인한 중동이이고, 파괴적인 그로테스크의 이미지는 항상으로 나타난다. 그 주요한 이미지와 그로테스크의 형성은 그로테스크의 특성과 그로테스크의 힘에 의해 개발된다.

독서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 형성의 영향을 본 요인으로는 죽음의 본능, 통증, 조직순서 현상, 추의 미학, 구조적 세계의 사상, 기술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로테스크를 형성해 왔고,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내면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본능인 죽음의 본능(Thanatos)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오타노나 모리토로 그로테스크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둘째, 종교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교회의 권력은 유지하기 위해 악마를 도구화하였으며, 신체의 조작이나 순상으로 신체를 신성한 존재로 승화시키는 카타르시스의 수단으로 보았다.

셋째, 다가올 세기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문화에 종말론, 회의론, 허루주의 등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되는 세기말 현상이 그 형성요인이었다.

넷째, 불화와 부조화의 요소를 지닌 추의 사회가 부패하고 불안해질수록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추의 미학을 통해 이상적이다, 아름다음을 추구하는 모습을 그로테스크의 이미지로 묘사한다.

다섯째, 전통적 오리엔티를 지켜나가는 지배문화에 대해 과유해증, 동창예제, 청년집단 등의 하위문화 집단들이 지나는 정치적, 이념적인 저항과 분열, 그리고 특정한 정체성이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형성요인이다.

여섯째, 기술의 발달로 기계와 인간의 경계가 혼동되어며, 하이오, 늑대, 늑대의 발달로 이익수술, 성형수술 등 신체 변형이 가능하게 되고, 재능 연구 등으로 인해 인간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점이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형성요인이다.

이와 같은 정신분석학적,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미지는 인류의 역사 속에 무무게 존재해 왔고, 알대로 저속적으로 가시화되어 현실의 숨겨진 이면을 충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삶의 정확한 본질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복식에서도 시각전환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다.

참고 문헌

장미숙·양동희(2000). 1990년대 후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메이크업 광고와 플렉션 
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제 8권 제 3호.
전영숙·박남희·김동연(1999). S. Freud 관점에서 
문 Gustav Klimt의 작품에 나타난 에로스와 타
나토스의 상징적 이미지. 미술치료학회, 제6권 
제1호.
「Pascal 세계대백과사전」(1999). 동서문화, v. 25, 
제6권(1995). 「통일복식미학」. 경준사
최정화(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경북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A. Heidsieck(1971). Das Groteske une das 
Absurde im Modernen Drama. Sprache 
und Literatur 53, Stuttgart-Berlin- 
Koln-Mainz.
Caroline Walker Bynum(1989). The Female 
Body and Religious Practice in the Later 
Middle Ages. In Fragments for a History 
London: Thames and Hudson.
London: Phaidon.
실문화연구.
Geoffrey Galt Harpham(1982). On The 
Grotesque. Princeton University.
Gerda Buxbaum(1999). Icons of Fashion—The 
20th Century. N.Y.: Prestel.
사.
The Grotesque in Art Literature, 
Erdmans.
Philip Thomson, 김영무 역(1986). The 
Grotesque. 서울대학교 출판부.